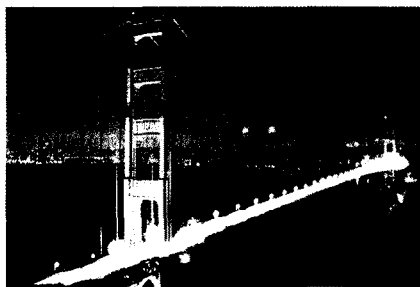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 설계자 선정 방식에 대한 미국의 현황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성 건축사 대표 사무실들에게 온 금문교 같은 기회



삼년 마다 한번 씩 샌프란시스코시는 시에서 발주 하는 프로젝트진행을 위해 건축사사무소들에게 RFQ(a Request For Qualifications-자격심사요청서)라는 군소 사무소들을 걸러내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주로 발주 하는 일들은 공공주거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개선 등의 프로젝트이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미리 선정된 건축사사무소들은 모두 여성 건축사들이 대표였다. 이것은 사실 소수민족이나 여성대표사무실 우선권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209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4개의 사무실 모두 합법인 소수 인원 사무실(small firms) 우선권에 해당되는 혜택자 들이었다.

샌프란시스코시 건축과의 과장이자 시 소속 건축사인 게리 호이는 "샌프란시스코 시 인권위원회는 시장에서 불리한 약자였던 소수 인원 건축사사무소들을 공평한 경쟁의 장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했다.

4개의 사무소들 중 둘은 독립적 사무소들이고 - 폴렛 타카르트 건축사사무소와 해밀톤 + 에잇켄 건축사사무소- 나머지 둘은 작은 사무소들이 이룬 조인트 벤처팀들 - 톰 엘리엇 피쉬 건축사사무소와 넵 건축사사무소팀, 마크 카바네로 건축사사무소와 캐리 번스타인 건축사사무소 팀 들이다.

사실 이번 계약은 뉴욕시에서 하고 있는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D+CE)"와는 다르지만 많은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뉴욕시와 같은 방향으로 가주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두 번 연속으로 선정된 건축사 리스트에 올라간 폴렛 타카르트 건축사는 "최근 만들어진 발주 부문 선정 건축사 리스트에서 보면 공공 분야에서 그들은 많은 경험보다는 좋은 디자인을 더 선호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4백만 달러에 이르는 이 발주계획을 위의 4개 건축사사무소들과 나누어 계약하기로 했다.

그럼 위의 글에서 언급된 뉴욕시의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D+CE)를 살펴 보도록 하자. 왜 우리의 서울시와 비교가 되는지...

The A-Lists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뉴욕시의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계획은 헛간설계, 오피스 리노베이션 같은 규모에서부터 도서관과 박물관과 같은 스케일 프로젝트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공공 건축물 프로젝트를 위한 조연자가 되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는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몰리고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D+CE)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장점이 있음이 입증하면서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경쟁이 유래 없이 치열해 졌다.



김은미 / Studio M.Ap
by Kim, Eunmee

아래의 글 들은 The Architecture Newspaper, <http://archpaper.com> 에서 발췌 번역하고 의견을 덧붙인 글입니다.



277 소방서 / STV Architects.
Photographs-Bernard James/City of New York

2008년도에 완공된 STV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부쉬위크에 위치한 277 소방서이다. 이것은 뉴욕시에서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Initiative 로서 발주한 첫 완공작이다. 이 작품은 Art Commission award 2004 를 수상했다.

미총무청 산하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에 건축사로서 속한 Karen Bausman+Associates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카렌 바우스만은 동종업계에 있는 전문가로서 이런 공공 프로젝트에 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 관점에서 볼 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이 아닌 건축물간에는 장애물로 닫혀져 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이 이제는 우리의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디자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선두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녀 자신 뉴욕거점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공공건축의 범주에 빠져들어, 뉴욕 주 공원과 휴양시설 부서 산하 남브롱스에 위치한 Ferry Point Park안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녀의 의견은 다소 낙천적인 면이 있다. 사실 몇 십 년 동안 공공 건축물 프로젝트들은 대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RFP(Requests for Proposals-제안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들에게 받았고, 이는 디자인 설계사무실 (Design Oriented Architectural Firm)의 목을 움츠려들게 하여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박한 예산과 고대 관료주의적 진행, 조악한 시공의 질, 이런 것들이 공공 범주의 프로젝트들이 관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머물게 만들거나 또는 사실 개발업자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생색내기용 프로젝트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브롱스 아트뮤지움 / Arqitectonica
Photographs-Norman Mcgrath

Arqitectonica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브롱스 아트뮤지움은 2003 Art Commission 을 수상하였고, 이 작품은 뉴욕시의 (D+CE) 프로그램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최소한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조류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공 건축물 설계 발주를(거의 1년에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이다) 위해 줄을 늘려선 건축사들이 지난 5년간 두 배로 늘었다.

엄청난 예산을 가졌던 공공 개발자들이 사라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공공건축물로 물려들고 있다.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한동안 걸끄러웠던 부문이었던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Initiative (DCE) 가 제 자리를 잡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22회 연례 아트커미션 어워드에서 8개의 가장 디자인이 훌륭한 시 발주 공공 건축물 - Polshek Partnership: entrance pavilion at the Brooklyn Museum of Art 등 - 을 선정하여 Excellence in Design을 수여하며 2004년도에 처음으로 DCE를 발표했다. 뉴욕시장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이 DCE의 목적은 “우리의 뉴욕시가 가진 탁월한 면을 부각 발

전 시켜 세계의 디자인 수도로 만들자” 라며 시 부처들을 독려했고, “공공건축물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훌륭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연례 아트커미션 어워드에서 심사를 하여 우수작을 수상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DCE가 시 전반에 걸쳐 진행될 무렵, 설계와 건설 부처의 수장인 David J. Burney가 DCE의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그 부서 안에 설계와 건설 부문 프로젝트가 있는 공원 부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힘든 DCE의 시작의 첫걸음은 디자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의 방법을 개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공공 건축물들에 대한 수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실에 의해 결정되었다. 최저가 입찰! 이것은 정치가들에게 본인에게 표를 주는 납세자들에게 검약한 치적물을 전시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게 검증된 방법이었으나, 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이런 방법으로는 훌륭한 건축사들을 끌어들이 수 없고 또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DDC는 이러한 가격경쟁 조달 방식을 품질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진행방식으로 바꾸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시 당국이 스케줄과 예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들에게는 품질로 보상이 된다.”라고 David J. Burney가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각 프로젝트 책임자들에게 품질이라는 개념을 재인식 시키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입증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DDC는 두 가지 새로운 조달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RFP 절차를 간소화해 각 프로젝트가 적합한 건축사에게 가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범위와 규모의 사무소들이 공공건축물 발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모든 건축사사무소들이 90페이지가 넘는 현상설계 포맷을 만들 수 있는 마케팅 부서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브루클린 소년원이나 퀸즈에 세워질 신경철학교와 같은 미화이천오백만 달러가 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두 단계 RFP방식

으로 각각 진행 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최소한 이번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동료 건축사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그 회사의 협력업체, 프로젝트 팀원들의 경력과 학력, 그리고 설계 결과물들을 토대로 응답서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이미 입증된 대형 사무소들은 2단계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초청된다. 두 번째 단계 끝 무렵에 시 당국은 기술적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사무소들과 가격협상을 한다. "DDC의 새 건축사 선정 방식은 주목받는 단계의 건축을 확립해 줄 것이다." 라고 뉴욕시에서 무수한 프로젝트를 설계한 Polshek Partnership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의 이사인 Todd Schliemann가 설명했다. "시에서 디자인을 무시하고 현실성만을 주장하던 시절은 옛말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예산이 이천오백만 달러 이하의 프로젝트에서는 뉴욕시에서 선정한 조연자 역할 사무소들로 성장한 사무소들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 당국은 RFP를 받고 적절한 경력과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가졌다고 자문단에 의해 평가된 사무소들이 이러한 예산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초청된다. 이렇게 초청된 사무소들은 그들 사무소들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안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일종의 제한 현상설계)으로 24시간 계약체제를 가지게 된다.

제안안 제출 진행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들을 대형 사무소와 소수 인원 사무소 카테고리로 나누어 배분하고, 이 카테고리리는 더욱 세분화 하여 천만 달러 이하 섹

션과 천만에서 이천오백만 달러 섹션으로 나뉜다. 매해 50개 이상 발주되는 천만 달러 이하 섹션에는 시 당국이 24개의 소수인원 사무소(정확히 열 명이나 그 이하의 인원의 사무소를 말함)를 선정,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사무소들의 면면을 보면 Andrew Berman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Lyn Rice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 Toshiko Mori 건축사사무소 등이다. 또한 천만에서 이천오백만 달러 섹션에는 8개의 더 큰 사무소들 Polshek Partnership 건축사사무소, Smith-Miller+Hawkinson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 Grimshaw 건축사사무소 등이 선정되었다.

여기까지 The Architecture Newspaper에 시간차를 두고 실렸던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하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연방체제로 엮여 있는 국가로서 각 주의 법이나 특색은 가끔은 다른 나라가 아닌 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어쩌면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주의 경우를 대비 살펴보았는데, 공공 건축물을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해답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가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 준 기회 제공 방식과 퀄리티 디자인 수급방식은 요사이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일감 없음을 호소하는 여러 실력 있는 건축사들을 떠올리게 했다. 일명 돈 내고 돈 먹기의 턴키나 현상설계 운영방식으로 현상설계나 기회 프로젝트로 발돋움 하려는 얼마나 많은 신진 건축사들의 꿈이 막히는걸 알고나 있는지... 이러한 악순

환으로 기회가 없었던 국내 건축사들은 실력을 펼쳐 보이지도 못하고 큰 시장을 결국 외국 스타 건축사들에게 내주고 있는(때로는 심지어 스타도 아닌 외국 건축사들에게) 문화 사대주의를 얼마나 한탄하는지...

국내 건축사들에게 경쟁력이 없음을 질타하고 심지어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나 현상설계에서 외국 건축사와의 협업을 기본 조건으로 내거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무한한 부러움만 품을 수밖에 없다.

건축설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특히 공공 건축물 발주에서는 공개경쟁 현상설계가 주류를 이루고, 또한 비교적 약자인 젊은 소수 인원 사무실만이 참가할 수 있는 현상설계를 진행하여 그 사무소들의 처음 짓는 프로젝트를 가지게 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 설계에서는 제출서류들에 이들 사무소들에게는 엄청난 예산인 CG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게 진행 심사한다.

이렇게 내수시장에서 끊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경제적, 건축사적 힘을 키운 건축사들은 해외에 그들의 디자인을 수출하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그리고 우리는 그들 스타 건축사라며 엄청난 계획 설계비를 주며 모셔오고...)

지난 4년간 서울시는 어쩌면 뉴욕시와 같은 구호로 디자인 수도를 부르짖으며 엄청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발주했다. 이 두 시가 채택한 방식은 너무나 달랐다.

우리가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용 건설물들을 마구 지어내는 것에 앞서 외국의 이러한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건축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